

102  Since 1908.5.1  
기독교대한감리회  
청파교회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 평화세상을 여는 녹색교회

하나님께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중금시역화 방지를 위한 은총의숲 만들기

# 주 일 낮 예 배 순 서

【 주현절 4주 】

전 주 .....	반주자
임재의 기원 .....	거룩 거룩 거룩 .....
예배로의 부름 .....	인도자

♠ 경배의 찬송 ..... 38. 예수 우리 왕이여 ..... 다함께

♠ 공동기도 ..... 다함께

자비하신 하나님, 변함없는 모습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침과 저녁, 어제와 오늘의 마음이 너무 쉽게 변하는 저희입니다. 지극히 작은 일 하나에도 쉽게 흔들리는 저희입니다. 주님, 연약한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마음 흔들릴 때마다 더욱 힘써 기도의 손을 모으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확신 속에서 길을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주님, 자연을 파괴하며 무분별한 개발에만 열을 올리는 인간의 어리석음을 꾸짖어 주십시오. 삶의 품격과 질을 높인다며 더 크고 높은 건물을 짓는 일에만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주님, 건물이 크고 높아질수록 가난한 이들의 마음에 드리워진 그림자도 크고 어두워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소수를 위한 성장과 개발보다는 만인을 위한 분배와 보호가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참회의 침묵기도 ..... 다함께

♠ 위로의 말씀 ..... 눅3:22 ..... 인도자

♠ 교 독 문 ..... 123. 주현절(3) ..... 다함께

♠ 영 광 송 ..... 2. 찬양 성부 성자 성령 ..... 다함께

대표기도 ..... I. 최다미 학생 II. 김인걸 장로

응 답 송 ..... 찬양대

찬 양 ..... 305(405). 나 같은 죄인 살리신 ..... 다함께

성경봉독 ..... I. 창28:10-22 ..... 최명하 학생

..... II. 요8:1-11 ..... 하현철 권사

찬 양 ..... 찬양대

말 씬 ..... I. 베델이라 하리라 ..... 손성현전도사

..... II. 다시 몸을 굽히고 ..... 김재흥 목사

거듭기도 ..... 다함께

연 주 ..... 홍지희

♠ 봉 헌 ..... 317(통353). 내 주 예수 주신 은혜(1,5) ..... 다함께

♠ 봉헌 및 목회기도 ..... 담임목사

공동체 소식 ..... 담임목사

♠ 평화의 인사 ..... 다함께

♠ 보냄의 말씀 ..... 다함께

인 도 자 :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생명을 돌보기 위해 몸을 굽히며 사십시오. 바른 말만으로는 세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 정성스런 마음으로 생명을 돌보며 사십시오.

다 함 께 : 아멘. 조금의 실천도 없이 입으로만 생명과 평화를 말하던 지난날의 삶이 부끄럽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 시간과 물질을 쓰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품을 열어 그들을 안아주겠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그들의 아픔에 동참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변치 않게 해주십시오. 아멘.

♠ 찬 양 ..... 635. 주의 기도 ..... 다함께

♠ 축 복 ..... 담임목사

☼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 환히 열린 미래를 봅니다 ☼

주일 오후 집회	수요집회
임원교육	2월 기도의 밤
강사 : 김기석 목사	인도 : 김기석 목사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김재흥 목사	한성건 선생	이승철 학생
	김기석 목사	김재흥 목사	박홍재 권사

1월	영접위원	방문성 김중수 임주빈 이순정 최현옥 김금순
	헌금위원	조병무 박홍재 (보조 : 다른 재무부원들)

## 삶에 대한 새로운 시각

인간이 사라진다면 자연은 더 이상 나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종종 내 수업을 듣는 사람들에게 농담을 하곤 합니다. 만일 인간들이 사라진다면, 고래와 코끼리들이 당장에 잔치를 벌일 것이라고. 인간 약탈자들이 동물을 해치는 일이 중단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계속 치켜세우는 일이 이제는 아무 재미도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타락한, 우주에서 가장 추하고 잔인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 작은 행성을 두고 아옹다옹하는 소리를 들을 때면, 정말로 한심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자만심을 버리고, 스스로에게 상장을 수여하는 짓을 멈추고, 맑은 정신으로 우리 인간 존재가 극단적으로 잔인하며, 파괴적이고, 폭력적이며, 위험한 종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한동안 나는 내가 인간이기보다는 양서류이기를 바라기까지 했습니다. 그만큼 나는 인간이 얼마나 위험하고 파괴적인 존재인지 자각하고 있었습니다. 고통을 말할 때, 열 명 중 아홉 명은 인간의 고통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기 종은 물론 다른 종에게 고통을 가하는 것은 바로 인간 존재들입니다. 인간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가장 광적인 살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는 그 점에 대해 어떤 환상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증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닭이나 소들이 집단적으로 사육되고 있는 장소로 한번 가보십시오. 그곳에서는 정말로 용납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것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극소수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정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아무것이나 정상적이라고 받아들이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크나큰 역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고약한 인간이라 하더라도, 바로 그 인간만이 생명의 아름다움을 찬양하고 그 아름다움에 전율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나무는 매우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나무에 불과합니다. 나무는 자신의 존재에 만족합니다. 나무와 달리 우리 인간은 우주 만물의 아름다움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감탄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교회에서 우리는 곧잘 ‘주를 찬양합니다! 주를 축복합니다!’ 하고 외치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것 역시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것이 단지 말에 그치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인간은 말과 훌륭한 문구들, 멋진 선언들을 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경향이 다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다른 생물들이 우리에게 반항하지도 못하고 말없이 고통받는 것을 지켜봅니다. 우리는 삶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않기 위해 너무도 자주 멋진 말들을 사용해 핑계를 댍니다. 강연을 하면서 나는 종종 그 점에 대해 스스로를 의심해 봅니다. 그때 나는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자문합니다.

‘피에르, 넌 네가 지금 하는 말과 정말로 일치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말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을 하면서 그 말이 우리를 어디까지 데리고 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인간으로서 나는 나에게 세계 파괴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것에서 탈출할 방법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 방법은 또다시 말하건대, 신성으로 되돌아가는 일입니다.

나는 모든 것이 신성하다는 이 말을 반복해 강조합니다. 이것은 시각의 문제입니다. 천지 만물에 속하는 것들은 아무리 보잘것없는 것이라 하더라도, 동물이든 식물이든 광물이든 모두 신성합니다.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기만 하면, 그 존재들이 가지고 있는 성스러움은 우리의 심금을 울릴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존재의 행복입니다. 나는 그것에 대해 강한 직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숨을 거두는 날까지 나는 계속해서 내 주위의 신성에 주의를 기울일 것입니다. 비록 온 세상이 혼돈에 빠져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바로 매일 아침 전쟁과 테러, 학살과 몰이해, 공해 등 온갖 나쁜 소식을 들으면서도 내가 행동을 멈추지 않는 이유입니다.

## 책꽃이를 치우며

도종환

창 반쯤 가린 책꽃이를  
치우니  
방안이 환하다

눈앞을 막고 서 있는 지식들을  
치우고 나니  
마음이 환하다

어둔 길 헤쳐간다고 천만 근 등불을  
지고 가는  
어리석음이어

창 하나 제대로  
열어놓아도  
하늘 전부 쏟아져 오는 것을

###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도사 : 장영숙 이성운 손성현		
소속목사 : 김준우 한인철 양재성 한정애		
원로장로 : 전영규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구성실		
장로 : 조병무 한완식 윤석철 방문성 한상익 김인걸		
지휘 : 윤주원 안홍숙	반주 : 최윤선 김수진 최미선	
차량 및 교회 관리 : 오진훈	도서관장 : 박혜경	

## ◇ 헌금영수기 ◇

### 십일조헌금:

허호범 박성실 김정애 김윤수 박상오 임승동 백혜숙 박규석 박경선  
이한림 김명희 박용진 김용원 김경연 곽상준 최경미

### 월정헌금:

김현주 김문주 최재욱 이수정 황의일 이현숙 이현순 강미라 김종문  
무명2

### 감사헌금:

최종훈 김금하 김혜영 박혜경 하재두 김경수 전성오 최숙화 주우탁  
정희선 정종삼 한경숙 손성윤 노우종 우주연 김필순 한상익 정영선  
강순배 무명1

### 생일감사헌금

이우원 이성익

### 녹색꿈헌금

최경미 이나단

속명	인도자	속장	모인곳	다음장소
예루살렘	장혜숙	박성실	심	심
베들레헴	노순옥	정경례		
안디옥	임정자	최경미		
가나안	문영혜	이명희		
갈릴리	안정숙	진정숙		
베다니	박홍재	곽권희		
시온	박효선	허정윤		
엠마오	최숙화	권미정		
에베소	이순정	김금순		
빌립보	이형숙	권미숙		
가버나움	안홍숙	오현정		
나사렛	정영선	백혜숙		
갈라디아	유경순	김명희		
고린도	이영란	이영란		
다메섹	박혜경	최영혜		

## ■ 교/회/소/식/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1. **임원교육** : 임원교육이 오늘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2층 예배실에서 열립니다. 모든 임원은 빠짐없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2. **기도의 밤** : 이번 주 수요집회는 2월 기도의 밤으로 모입니다. 기도회 중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3. **연합속회** : 이번 주 5일(금)에 예정되어 있던 연합속회는 19일(금)로 연기합니다.
4. **새신자교우** : 새신자 교육이 2월 첫 주부터 새롭게 시작됩니다.
5. **교사모집** : 교회학교 아동부에서 교사를 모집합니다. 봉사를 원하시는 분은 교회학교사무실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6. **결혼** : 김지호 씨와 전해리 씨가 2월 6일(토) 낮 12시에 서강대학교 곤자가 플라자에서 결혼합니다. 축하합니다. (대흥역 2번 출구에서 순환버스가 있습니다.)
7. **신앙실천** : 음식을 감사한 마음으로 드시고 잔반을 남기지 않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 식당 봉사 : 3, 4, 5 남선교회 (다음 주 : 다메섹 속)

\* 설거지 봉사 : 이우엘 이나단 이준하 (다음 주 : 이국노 김민화 박시내)

##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예배	09:30	교육관
유 치 부	10:50	유치부실	2부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오후집회	14:00	교육관
중고등부	10:5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 년 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